

한국어 역접관계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 刘荣荣 | 山东大学 |

[摘要] 本论文将韩礼德和哈桑(Halliday & Hasan)的外部连接关系和内部连接关系这两个概念应用到韩国语中,从语篇语言学的视角分析韩国语的转折关系,将转折关系的连接成分从连接副词扩展到样态副词和短语,探究它们的功能及意义,弥补了之前的研究只局限于连接副词的缺陷。

[关键词] 转折关系; 连接副词; 样态副词; 连接短语; 语篇语言学

1. 서론

역접관계는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결속관계를 가리킨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하지만’ 등의 접속부사에 한정하여 역접관계를 논의한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는 일부 양태부사와 접속구도 대립적인 두 문장을 접속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1) 가. 경찰은 초보적인 수사 상식조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범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쉬쉬 숨기기에 바빴다고 한다.
- 나. 사람들은 여름은 더워서 싫다고 한다. 반면에 뜨거운 햇볕이 정열적이라며 여름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1가)는 경찰이 수사를 이행하기보다는 도리어 범죄를 숨겼다는 것으로 후행문에는 예상했던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온다. ‘오히려’는 수사를 이행하는 것과 범죄를 숨기는 것이 이룬 역접관

계의 연결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1나)에서는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과 여름을 즐기는 사람이 대립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명사 ‘반면’에 조사 ‘에’가 결합된 ‘반면에’가 대립적인 두 문장을 접속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반면에’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결합하여 접속 기능을 하는 구(句)를 접속구라고 부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텍스트 차원의 접속관계를 문장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로 보고, 대립되는 두 사건을 이어주는 요소를 역접관계의 표현 형식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속부사뿐만 아니라 접속 기능을 가지는 일부 양태부사와 접속구도 접속 표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역접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표현으로 양태부사와 접속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76)에서 제시한 외부접속과 내부접속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어 역접관계의 표현 형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예문은 모두 사전이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혀 둔다.

2. 외부접속과 내부접속

할리데이와 하산(1976)에서는 접속 요소는 그것이 가진 특수한 의미 때문에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응집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접속 요소는 선행 또는 후행하는 텍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담화상의 다른 요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응집적 연결과는 다른 특이한 의미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본 것이다. 그들은 접속을 부가(additive) 접속, 대립(adversative) 접속, 인과(causal) 접속과 시간적(temporal) 접속으로 나눈 후 각 접속 유형을 다시 외부적(external) 접속과 내부적(internal) 접속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별함으로써 접속에 속하는 모든 의미적 관계를 포함시킨 셈이다.

외부접속과 내부접속의 차이는 다음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 가. Next he inserted the key into the lock.

나. Next, he was incapable of inserting the key into the lock.

(2)는 모두 'next'로 시간 관계를 나타내고, 문장 앞에 어떤 문장이나 텍스트적 환경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2가)는 사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First he switched on the light'를 선행 문장으로 상정할 수 있다. 언어행위로 표현한다면 '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은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이다. 이 경우는 시간 순서가 주제(thesis) 속에, 즉 발화 내용 속에 존재한다. 이와 달리 (2나)의 선행 문장으로는 'First he was unable to stand

upright'를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사건 없이 시간 순서가 발화에 대한 발화자의 조직(organization) 속에, 즉 논제(argument) 속에 존재한다. 언어행위로 표현한다면 시간 순서는 '나는 먼저 어떤 일을 말하고, 그 다음은 다른 일을 말한다'이다. (2가)와 (2나)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가)는 언어의 경험적 기능으로 응집을 해석해야 하는 반면에, (2나)는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응집을 해석해야 한다. 즉, (2가)의 경우는 외부 현실적 경험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지만 (2나)의 경우는 화자가 언어의 역할이나 수사(修辭) 방식의 선택, 또는 화자의 태도나 판단 등을 표현한다. 외부현상 사이의 관계로 존재하는 (2가)와 같은 접속관계는 외부접속이라고 하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내부에 존재하는 (2나)와 같은 접속관계는 내부접속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접속 방식은 접속관계의 두 층위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3) Next, previously to this he had already

[내부] [외부]

offered to resign.

(3)의 'next'와 'previously to'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지만 한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층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next'는 내부접속을 나타내는 반면, 'previously to'는 외부접속을 나타낸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역접관계도 외부접속과 내부접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가.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궁핍한 생활은 마찬가지였다.

나. 형우: (웃으며) 형식이야 좀 재미없죠?
민정: 맞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그분 누구세요?

(4가)는 그가 열심히 일하였기에 풍족한 생활을 기대했으나 궁핍한 생활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역접관계가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나'는 외부접속을 나타낸다. (4나)에서 '그런데'는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언어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접속을 나타낸다.

3. 역접관계의 표현 형식

이 장에서는 역접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와 양태부사, 접속구를 외부접속과 내부접속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3.1 역접관계 접속부사

역접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로는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등이 있다. 이들 접속부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대체로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은 '대조' 의미가 강하고, '그래도'는 '양보' 의미가 강하며 '그런데'는 '전환' 의미가 강하다는 의견의 일치점을 이루었다. 다만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그 확장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접속부사들은 그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다는 여러 의미관계로 발현되는 두 문장을 연결시킨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다음은 '그러나'가 사용된 예들이다.

- (5) 가. 동욱이는 키가 매우 크다. 그러나 짝꿍인 현수는 반에서 키가 가장 작다. [대조]
 나. 다른 나라의 침략 위협 요소가 감소했다는 의견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이는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의한 것이다. [양보]

다. 완벽한 준비성은 태임이에게 타고 난 팔자여서 거역할 수도 의심할 여지도 없는 거였다. 그러나 가끔 답답한 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예외]

라. 우리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선수 중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기대 부정]

(5가)에서는 동욱의 키가 크다는 것과 현수의 키가 작다는 것이 대조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위치가 바뀌어도 그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5나)는 다른 나라의 침략 위협 요소가 감소했다는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다른 견해를 후행 문장에 추가하여 다른 사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5다)에서는 가끔 답답한 것이 예외로 해석된다. (5라)는 우리가 열심히 손을 흔들었기에 선수들이 돌아보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그러나'는 '대조', '양보', '예외', '기대 부정'이라는 의미관계의 연결 형식이 된다. (5가)-(5라)에 쓰이는 '그러나'는 모두 선행문과 후행문의 두 사건을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접속에 속한다.

다음은 '그렇지만'이 사용된 예들이다.

- (6) 가. 수진이는 언제나 일찍 일어난다. 그렇지만 막넛동생은 매일 아침 늦잠을 잔다. [대조]
 나. 네 말도 일리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야만 한다. [양보]
 다.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렇지만 저 방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제약]

(6가)에서는 선행문과 후행문이 대조 관계를 이루며, (6나)에서는 네 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뒤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야만 한다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6다)는 모두 할

수 있는 대신 저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제약’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조’, ‘양보’, ‘제약’이라는 의미관계는 ‘그렇지만’에 의해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가)–(6다)에 쓰이는 ‘그렇지만’은 외부 접속에 속한다. ‘그러나’와 ‘그렇지만’, ‘하지만’의 의미와 용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교체해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선·후행문에 서로 대비되는 ‘대조’의 의미가 강한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과 달리 ‘그런데’는 주로 선행문에서 후행문으로 상황이나 화제가 바뀌면서 반대되는 내용이 오는 ‘전환’ 의미로 사용된다. 다음은 ‘그런데’가 쓰인 예들이다.

(7) 가.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화제 전환]

나. 한번은 아버지가 옆집 사람들이 아직 물을 길러 가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집 물독을 채워준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은 오히려 그 집의 불화만 가져왔다. [기대 부정]

다. 동생은 벌써 숙제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서 놀 수가 없어요. [대조]

(7가)에서는 ‘그런데’가 화제를 전환하는 데 쓰이고 있다. (7나)는 다른 집 물독을 채워준 일이 좋은 일이기에 그들이 좋아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결과를 낳았다는 것으로, ‘기대 부정’의 의미 관계가 ‘그런데’로 연결된다. (7다)에서 동생은 숙제를 하고 나갔다는 것과 ‘나’는 숙제가 많이 남아서 놀 수 없다는 것이 대조 관계를 이룬다. 이때 ‘그런데’는 대조 관계의 연결 형식이 된다. (7가)의 ‘그런데’는 내부접속의 연결 형식이지만 (7나)와 (7다)의 ‘그런데’는 외부접속의 연결 형식이다. 이외에 ‘그런데’는 ‘양보’, ‘예외’, ‘제약’ 등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두 문장의 연결 형식

으로 쓰이기도 한다.

접속부사 ‘그래도’는 ‘양보’라는 의미관계의 연결 형식으로 쓰인다.

(8) 우리의 패배는 예상했던 것이다. 그래도 실망스럽기는 하다.

(8)은 패배를 예상했던 것을 일단 인정하고 후행문에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여 ‘양보’ 의미를 나타낸다. 대조되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래도’는 외부접속의 표현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단지’, ‘다만’, ‘단’도 외부접속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접속부사이다.

(9) 가. 이견 닭고기 맛이에요. 단지 맛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나. 유럽의 음악 전공학교에서도 교수가 직접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학생을 고른다. 다만 선발기준이 우리와 전혀 다를 뿐이다.

다. 근무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12시까지로 한다.

(9)의 ‘단지’, ‘다만’, ‘단’은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말들이다. 서로 바꾸어 쓰일 수 있는 이 세 부사는 ‘예외’나 ‘조건’의 의미관계의 연결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는 여러 의미관계의 접속부사로 쓰이는데 ‘기대 부정’, ‘양보’, ‘대조’, ‘예외’, ‘제약’의 연결 형식으로 쓰일 때는 외부접속에 해당하며, ‘그런데’가 ‘화제 전환’의 연결 형식으로 쓰일 때는 내부접속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보’ 관계의 접속부사인 ‘그래도’, 그리고 ‘예외’나 ‘조건’ 관계의 접속부사인 ‘단지’, ‘다만’, ‘단’은 외부접속에 해당한다.

3.2 역접관계 양태부사

양태부사는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것인 만큼 내부접속에 속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역접관계의 내부접속 중에는 하나의 표현 방식을 부정하고 다른 표현 방식을 수긍하는 ‘대조’의 의미가 있다. 즉, ‘방금 말한 것과 달리……’, ‘…… 아니라 ……이다’ 정도의 ‘수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역접관계의 전형적인 표현 형식으로는 ‘오히려’, ‘차라리’가 대표적이다.

- (10) 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저를 고소하겠대요.
나. 주차장은 좁은 골목에 있는 관계로 없다고 보는 편이 낫다. 차라리 다소 떨어진 곳에 차를 두고 도랑길을 따라 걸어가는 편이 더 편리하다.

(10가)에서 예상했던 것은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고소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못 받았다’를 빌려간 사람이 ‘고소하겠다’로 수정하는 역접 관계는 ‘오히려’에 의해 연결된다. (10나)의 ‘차라리’는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뒤에서 반대되는 말을 도입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던 상황에 대한 무시를 나타내고 제거의 성격을 지니는 내부접속도 있다. 즉, 어떤 상황을 말해 놓고 무관하거나 그 상황의 출현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표현 방식으로는 ‘어쨌든’, ‘어떻든’, ‘아무튼’, ‘좌우간’, ‘하여튼’, ‘하여간’, ‘여하간’, ‘여하튼’ 등이 있다.

- (11) 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다른 선배 기업인들에게 송구스럽다. 어쨌든 성실하게 세금을 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 그건 그렇소.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일관성이라면 그건 절망이지요. 아무튼 예상하건대 청나라는 이곳을 그네들 마지막 보루로 삼을 겁니다.

다. 그건 그렇겠다. 하여간 이래도 저래도 우리 백성들은 죽을 노릇이다.

(11가)에서는 다른 선배 기업인들에게 송구스럽다고 하면서 이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든 역접관계를 ‘어쨌든’으로 연결하고 있다. (11나)의 ‘아무튼’과 (11다)의 ‘하여간’도 ‘어쨌든’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말이 무관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뒤에서 하려는 말을 할 때 쓰이고 있다.

3.3 역접관계 접속구

접속구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기는 해도’,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역접관계 중의 외부접속에 속한다.

- (12) 가. 그의 방 텔레비전 화면도 희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확실히 K의 방 텔레비전에 비하면 낫기는 나왔다.
나. 우리가 그 법을 개정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기는 해도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날씨는 춥고 곳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단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 연기자들에게 시청자의 비난은 기분 좋은 일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기자 사이에는 비난 혹은 항의 전화를 오히려 좋아하는 경향도 있다.

(12가)에서는 그의 방 텔레비전 화면도 희미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뒤에서 상반되는 말로 ‘양보’의 의미를 드러낸다. (12나)의 ‘그렇기는 해도’,

(12다)의 ‘그런데도’, (12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앞의 사실을 인정하지만 뒤에는 대조되는 말로 ‘양보’의 의미 관계를 보이는 두 문장을 이어준다.

‘대조’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접속구로는 ‘이/그와 달리’, ‘이/그와 대조적으로’, ‘이에 비해’, ‘이와 반대로’, ‘반대로’, ‘반면에’ 등이 있다.

(13) 가.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모든 것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회다. 이와 달리 신라시대에는 출생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골품(骨品) 사회였다.

나. 레이첼이 죽음을 당할 줄 알면서도 누군가 영원히 사느냐고 반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조인간들은 더 인간적이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다른 인조인간에 대해 동지애를 느낀다.

다. ‘왕’이 “크다”는 의미로 한자어에 결합한 예는 ‘왕만두’밖에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비해 (5)에 쓰인 ‘왕’은 “아주 심한”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으스스대거나 그것을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과 겸양의 자세를 지닌 사람도 드물긴 하지만 가끔은 볼 수 있다.

마. 문세 아저씨는 갑자기 대답이 막혔다. 반대로 분이는 말을 하고 싶어졌다.

바. 평화는 약하고 근시안적이며 겁먹고 게으른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다. 반면에 용기는 사악한 기질과 나쁜 성격의 소유자들 가운데에서 많이 발견된다.

(13가)에서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와 신라시대 사이의 대조관계를 ‘이와 달리’로 연결하고, (13나)에서는 레이첼과 인조인간의 대조관계를 ‘이와는 대조적으로’로 연결한다. (13다)에서는 ‘크다’

의 의미로 쓰이는 ‘왕’과 “아주 심한”의 의미로 쓰이는 ‘왕’이 대조를 이루며 (13라)에서는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으스스대거나 그것을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과, 많은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과 겸양의 자세를 지닌 사람이 대조를 이룬다. (13다)와 (13라)의 대조 관계는 각각 ‘이에 비해’, ‘이와는 반대로’로 연결된다. ‘이와 달리’,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에 비해’, ‘이와는 반대로’는 모두 지사어 ‘이’를 포함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13마)의 ‘반대로’와 (13바)의 ‘반면에’도 대조적인 두 문장을 연결시킨다. (13마)에서는 문세 아저씨와 분이가 대조 관계를 이루며, (13바)에서는 평화와 용기가 대조 관계를 이룬다. ‘다른 한편으로는’은 아래 (14)와 같이 대조적인 사실을 언급할 때도 쓰인다.

(14) 1970년대 이후로 조선과 한국관계 전체를 바라보면 민족적 접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과 한국관계가 진행돼온 적이 있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접근, 혹은 국제문제 중심으로 진행돼온 적이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 대립접속의 경우도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대조’란 ‘사실은, 실제로는, 사실을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등에 의해 표현되어 ‘커뮤니케이션의 현재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바와 달리, 사실은……’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역접관계는 사실성 단안, 즉 ‘성명’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15) 가. “그럼 당신은 곧 떠나시겠군요?”

“아니에요. 사실은 2년 더 있을 거예요.”

나. 나는 그 일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실제로는 아주 쉬워.

다. 아이아빠인 그가 와야 아이엄마는 내게 다시 아이 과외를 시킬 것이다. 사실

을 말하자면 그가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리라는 기대보다도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내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게는 더 중요했다.

라. 취미요? 글썄요..... 전에는 골프를 좀 쳤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만나는 것밖에 없네요. 솔직히 말하면 '취미가 없다'는 편이 맞을 거예요.

(15가)에서는 곧 떠나겠다는 남의 예측과 달리 2년 더 있을 거라고 대답하였다. '사실은'은 남이 한 말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¹¹⁾ (15나)에서는 그 일이 힘들 거라는 예상과 반대로 쉬웠다고 말한다. '실제로는'은 방금 한 말에 반대되는 내용을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다. (15다)의 '사실을 말하자면'과 (15라)의 '솔직히 말하면'도 선행문과 대조되는 후행문의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기는커녕'은 '오히려'와 비슷하게 '수정'이란 의미 관계의 표현 형식이다.

(16) 헌신과 희생에는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고통과 괴로움, 공허만 뒤따른다.

(16)에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상과 달리 대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 고통과 괴로움, 공허만 뒤따른다는 역접 관계를 '그러기는커녕'으로 연결하고 있다.

앞의 상황에 대한 무시를 나타내고 제거의 성격을 지니는 내부적 대립관계의 접속구로는 '어느

쪽이든, 어떤 경우에든, 어느 경우에나' 등이 있다.

(17) 가. 그게 그의 잘못이었나 아니었나? 어느 쪽이든 해명은 있어야 해.

나. 모종을 옮겨 심는 일. 제자리에 아주 심는 경우와 한두 번 모판에서 옮겨 심은 다음에 제자리에 심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미리 땅을 잘 파 일구어 밀거름을 준 다음, 모종 뿌리에 흙을 많이 붙여 공들여 심는다.

(17가)의 '어느 쪽이든'은 '그의 잘못이든 아니든 상관없음'을 의미하며 (17나)의 '어느 경우에나'는 '제자리에 아주 심는 경우와 한두 번 모판에서 옮겨 심은 다음에 제자리에 심는 경우 중 어느 경우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속구는 '어쨌든', '아무튼'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이외에 '그건 그렇고', '어떻든지', '어떻게든' 등도 있다.

4. 결론

이 논문은 외부접속과 내부접속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역접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을 연구한 것으로 역접 표현을 기존의 접속부사에서 양태부사와 접속구 등 기능적인 범주로 확장하여 그 기능과 의미의 유형을 논의하였다.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어의 역접관계를 탐구함으로써 다양한 접속 표현을 추출하여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접속	내부접속
접속 부사	기대 부정, 대조, 양보, 예외, 제약: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 양보: 그래도 예외, 조건: 다만, 단지, 단	화제 전환: 그런데

양태 부사	없음	수정: 오히려, 차라리 제거: 어쨌든, 어떻든, 아무튼, 좌우간, 하여튼, 하여간, 여하간, 여하튼
접속구	양보: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기는 해도,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 이/그와 달리, 이/그와 대조적으로, 이에 비해, 이와 반대로, 반대로, 반면에	성명: 사실은, 실은, 실제로, 사실을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수정: 그렇기는커녕 제거: 어느 쪽이든, 어떤 경우에든, 어느 경우에도

주석

* 本论文得到山东大学基本科研业务费专项资金资助。

(1) ‘사실은’은 방금 한 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덧붙일 때 쓰이기도 한다. 이때 ‘사실은’은 대립접속이 아니라 부가접속을 나타낸다.

(가) 전 예전에 프랑스에 살았어요. 사실은 당신이 가려고 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나) 거긴 괜찮은 곳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거기에서 지내 봤어요.

참고문헌

[1] 김미선,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 김호정, 「담화 내의 ‘역접 관계’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1-1, 국어교육학회, 2000.
[3] 신지연, 「거시구조 접속의 양상—일간지 사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4,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3.

[4] 신지연, 「접속부사 ‘그러나’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18, 한국어의미학회, 2005.
[5] 이남경,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한국어와 문화』 4,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8.
[6] 이소현, 「문어에 나타나는 ‘-는데’의 의미 연구」,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1.
[7] 이은희, 「접속 관계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8] 전영옥·남길임, 「구어와 문어의 접속 표현 비교 연구」, 『한말연구』 17, 한말연구학회, 2005.
[9] 전영옥, 「문어와 구어에 나타난 ‘그러나’ 연구」, 『한말연구』 21, 한말연구학회, 2007.
[10] 한송화, 「한국어 접속부사의 사용 양상」, 『언어사실과 관점』 3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3.
[11] Halliday & Hasan, 『Cohesion in English』, Hong kong: Longman, 1976.